

朝鮮時代 深衣 構成試論

— 朴珪壽의 外服攷를 中心으로 —

明知大學校 生活科學部 衣類學專攻

教授 趙孝順

目 次

I. 序 論

1. 深衣의 起源과 變遷

- 1) 深衣의 起源
- 2) 深衣의 歷史的 變遷

2. 深衣의 諸學說

- 1) 鄭玄의 學說
- 2) 孔穎達의 學說
- 3) 孟子의 學說
- 4) 朴珪壽의 學說

II. 朴珪壽 深衣의 定義

III. 朴珪壽의 深衣 構成法

1. 深衣 材料
2. 深衣 質數
3. 深衣 裁縫法

IV. 結 論

참고문헌

ABSTRACT

I. 序 論

深衣는 고대 중국에 天子 제후의 平服이었으며 士大夫의 表衣이었고 서인의 吉服으로 착용되었는데 朱喜가 家禮에 천거한 이래로 유학자들의 法服이 되어 승양되어 왔다.

深衣는 衣와 裳이 連絢된 옷으로 대개 白布로 만들고 각 부분에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衣는 하늘을 표하고 裳은 땅을 뜻하며 12폭으로 된 것은 12개월을 의미하며 선을 두른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공경을 상징하는 중요한 옷으로 후일 袍類의 발달과 더불어 모든 복식의 표본으로 삼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유학자의 대표적 인 예복으로 착용되었다. 이 深衣는 중국에서는 朱子家禮, 玉藻, 儒教經典, 易을 통한 深衣등 많은

변증이 있으며 王宇清, 原田淑人이 深衣를 논증하고 있다. 선행연구로는 金仁淑의 深衣考, 金正子の 儒教經典에 나타난 深衣, 정혜경의 深衣의 상징성 연구, 趙孝順의 朴珪壽의 복식관중의 심의, 李善宰의 深衣 구성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 시대 남성학자 朴珪壽가 제창한 深衣 구성법을 실증적으로 試論해보고 한국의 深衣제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深衣의 起源과 變遷

1) 深衣의 起源

중국에 있어서 深衣의 문헌상의 최초의 기록은 禮記王制編에 舜帝憲氏가 深衣를 입고 養老의 禮를 했다는 기록과¹⁾ 좀 더 확실한 기록은 「禮記」의

* 이 論文은 明知大 自然科學研究所 研究費로 作成되었습니다.

1) 大世界史, 3玄岩社, 1971, p.44.

玉藻 深衣篇이다.

여기에서 王宇清은 ‘禮記’ 왕제편의 기록은 중국 복식의 기원으로 보기 때문에 深衣는 중국 복식의 기원과 같이한다고 주장한다. 周代에는 天子의 燕居服²⁾으로도 사용되었으며 秦·漢代에는 天子의 常服으로 되었고 魏晉南北朝 시대에는 八品 이하 四品이상의 公服으로 사용하였다.³⁾ 隋代에는 深衣제에 의거하여 天子의 降紗袍가 만들어졌고 唐代에는 주로 士人 계급에서 사용되었다. 宋代에는 士大夫 가의 冠婚喪祭, 燕居交際의 通服으로도 사용되었다. 明代에는 天子의 燕居服으로 입었으며 이외에도 周代부터 황후 및 명부의 朝祭服을 모두 深衣제로 하였으니 여자복에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深衣는 중국 역대를 통하여 수천년 동안 중국복식의 기본이 되었다.

2) 深衣의 歷史的 變遷

① 三國時代 深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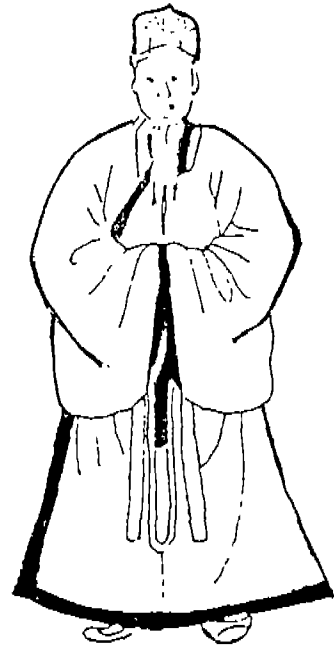
三國時代 高句麗에서는 深衣가 착용되었다는 것은 東國通鑑의 기록인데 高句麗 文咨王 491년 長壽王의 상례에 魏 나라의 임금이 深衣를 입고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고 하니 深衣가 喪服으로 착용된 것이다. 백제는 언어, 복식, 예속 역시 고구려와 같다하였으니 상례에 深衣가 착용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우리나라 深衣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類說 經學隊仗”의 문헌이다. 이 문헌에는 規矩와 方圓의 사용에 대한 변증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 시대의 深衣에 대한 별다른 추측은 경순왕의 태자 麻衣태자가 입었던 麻衣는 深衣로 추측할 수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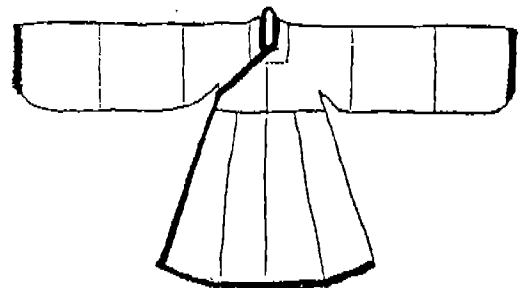
② 高麗時代의 深衣

深衣에 대한 문헌의 기록은 ‘高麗史’ 의종조에 ‘癸丑’에 遼의 祭尊用慰使가 숙종의 궁에서 祭하

였는데 王이 深衣를 입고 祭尊을 드렸다고 있어 의종이 喪服으로 입었음을 알 수 있고⁵⁾ 실제로 착용한 형태는 益齋李齊賢의 초상화에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高麗 중기를 지나 말기에 이르러서야 朱子學의 전래와 더불어 深衣가 유학을 숭상하는 士大夫에 영향을 끼쳐 學者간의 通服이 되었다.



〈그림 1〉 深衣 着用法(朴珪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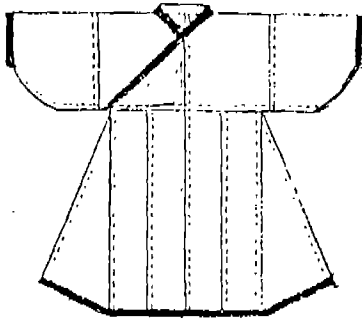
〈그림 2〉 居家雜服放(朴珪壽)

2)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中華大典編印會, p.38~93. 金仁淑, 深衣考, 服飾創刊號, p.102~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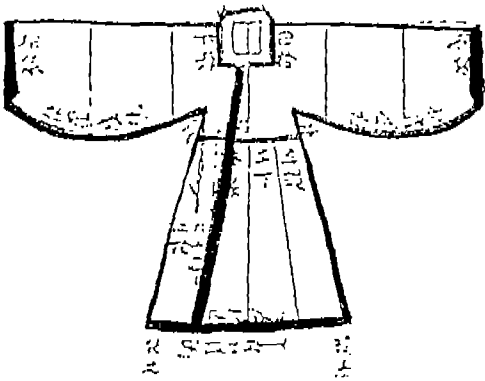
3) 周書, 異域傳, 北史, 隋書, 唐書

4) 朴珪壽, 居家雜服放, 深衣編. 李善宰 深衣構成에 관한 研究, 亞細亞 女性研究 p.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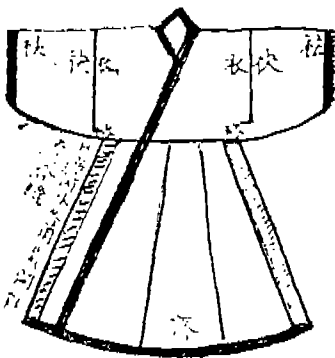
5) 金仁淑, 전계논문, p.104.



<그림 3> 漢六朝의 服飾(原田淑人)



<그림 4> 家禮考證(中國)



<그림 5> 家禮輯覽(金長生)

③ 朝鮮時代의 深衣

朝鮮朝에서는 儒家의 法服으로 숭상하게 되었고, 문헌에서도 家禮輯覽, 家禮彥解, 家禮考證, 四禮便覽, 居家雜服攷 등에서 深衣 제도를 변증하고 있다. 실제로 深衣를 착용한 유학자들의 많은 초상화들이 있다.

이와같이 朝鮮朝 全時代를 통하여 深衣는 “주자가례에 의거한 冠婚喪祭의 四禮의 通禮服 및 家禮服으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服飾文化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⁶⁾ 이것은 朝鮮時代 남성의 袍制가 貼裏, 道袍 襴衫, 鶴氅衣, 氅衣, 中致墓, 戰服 등 많은 袍制의 유행을 낳게 하는데 영향을 준 의복이며 많은 유학자들이 그들의 문집이나 가례에 하나같이 深衣制度에 대한 古說을 주장하고 있음에서도 입증된다.

2. 深衣 構成法에 대한 諸學說

1) 鄭玄의 學說

深衣란 것은 衣, 裳을 이어서 채색으로 純을 한 것을 말한다. 겉옷이 있으면 中衣라 말하고 회색으로 純하면 長衣라고 하였다. 長衣와 深衣 純을 회색으로 하며, 長衣 中衣는 소매를 1척을 덜게 한다.

深衣의 소매는 이미 팔꿈치를 지나야 하고 1척을 더 이어서 덜어야 한다.

麻衣는 15升포의 深衣이다. “麻衣라고 부르는 것은 純에 布를하고 채색의 꾸밈이 없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麻衣는 白布의 深衣로 衾를 입는다. 이 복장은 길한것도 흉한것도 아니다. 이 두가지 麻衣중 하나는 대상의 복이요, 점차,吉凶 나가는 복이다. 또 하나는 길하지도 흉하지도 않는 복을 만든것이다.

이 두가지의 용도가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深衣이다.

深衣의 재료는 안과 겉이 서로 걸맞아야 하는데

6) 李裕元, 林下筆記, 李肯翊, 열려실기술

中衣는 布를 쓴다고 하였다. 질기고 쉽게 구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15升布로 단련하고 빨아 젖물로 다스려 채색으로 純한다고 하였다.

“裳은 6폭인데 폭을 나누어 위아래를 쇠(殺)하여 만든다.”

玉藻鄭玄의 주에 “裳은 폭을 2로 나눈다”라고 하였는데 상의 폭을 12로 나눈것을 말한다.

玉藻에 “소매는 回肘해야 한다.”, “소매의 장단은 소매를 절반으로 접어 구부리라.”는 학설에 深衣에 “소매는 衣에다 붙여 접어 굽혀서 팔꿈치에 이르러 팔뚝 가운데가 節이 된다.”라 주장하였다.

玉藻에 “소매는 回肘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치수는 2尺 2촌의 節이다 라고 하였다.

深衣에 “소매는 길이의 장단은 반굴하여 팔꿈치에 닿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소매는 衣에다 붙여 구부려서 팔꿈치에 닿아 팔뚝 중앙이 節이 되어야 한다. 비골의 상하는 각기 1척 2촌이니 袂肘 이전은 1척 2촌이다. 肘는 肱腕이라고도 한다 라고 하였다.

玉藻에 “深衣는 三袪요, 縫濟(아랫단의 꿰멘부분)는 허리의 두배가 되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정현은 “三袪란 한 허리 가운데 숫자에 대해 말한 것이다. “縫”이란 꿰메는 것으로 아래의 단을 허리 가운데 보다 배로 꿰매는 것인데 1단1장은 4척 4촌이다. 「深衣」에 “續袷하여 鈎邊한다.”란 말에 속은 屬과 같다. 袷은 상의 옆에 있는 것으로 상의 앞뒤가 다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구는 “까마귀의 부리는 반드시 아문다”라고 할 때이며 구변이란 지금의 曲裾이며 屬은 肱 腕을 가리키는 뜻이다.⁷⁾

玉藻에 袷은 當旁한다. 임은 裳의 폭을 2로 나눈것이다.

衣에 붙이면 들어 늘어뜨리고 裳에 붙으면 꿰메어 전후상하를 합쳐 서로 변한다. 라고 하였다.

2) 孔穎達의 學說

① 深衣란 의·상을 이어 채색으로 純한 것인데 흰색으로 純한것을 長衣, 겉옷이 있는것을 中衣라 하니 長衣, 中衣, 深衣는 그 제도가 같은것이다. 長衣, 中衣는 소매끝을 이어 1尺을 덮도록 하는 것이다. 喪服에서 ‘中衣’란 것이 있었는데 練中衣는 황색을 안에 입는데 이것을 말함이다.

深衣의 의복재료는 「잡기」를 인용하여 深衣와 조복은 비슷하기 때문에 15升베를 사용한다. 단련하여 뻘다는 것은 두드려 세탁한다는 말이고 ‘젖물(灰)를 쓰는 것은 결을 굽게하여 부드럽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② 深衣는 12폭으로 만들어 12월에 응한다고 말한것은 深衣는 2폭이 여섯으로 매폭을 교해(交解)하여 들로 해서 12폭이다 라고 단정하였다.

③ 소매의 장단은 反誑하여 팔뚝에 이른다고 한것은 소매의 길이가 2척 2촌이고 아울러 緣을 1촌 반해서 2척 3촌반이 된다. 재봉하는데 각 1촌씩을 제해도 2척 1촌반이 남게 되는데 손에 이르기 까지 2척 4촌이다. 이제 2척 1촌반의 소매를 굽혀서 팔꿈치에 이르게 하는 것은 소매를 衣에다 붙이는데 服의 넓이는 2척 2촌, 몸의 등에서 어깨까지는 단지 1척 1촌, 어깨(肩)에서 팔뚝을 덮는데 또 1척 1촌으로 이는 의폭의 반으로 팔뚝을 덮고 나면 된다. 이제 소매를 衣에다 붙이면 2척 1촌 반이기 때문에 소매를 굽혀서 팔꿈치에 오도록 한다. 라고 하였다.

‘深衣는 三袪이다,라 하였는데 袪란 소매끝을 말하는 것으로 深衣의 너비를 소매끝보다 3배로 한다는 것이다.

봉자를 腰의 배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허리 가운데 너비보다 배로 한다는 것이며 자의 너비는 1장 4척 8촌이다.

‘要縫’이란 허리부분 꿰멘것이 尺寸을 말하는 것으로 하반이 1장 4척 4촌이니 요봉은 그 반이되어 7척 2촌이라 하였다. ‘상’의 1폭을 나누어 2폭

7) 朴珪壽, 外服攷, 深衣編

으로 하는데 아래쪽은 2척 4촌이 된다. 아래는 발이 움직이며 걸어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넓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속임·구변’이란 衽은 深衣의 상의로 아래는 넓고 위는 좁기 때문에 임이라 부른다. 임의 접속하여 그 旁邊을 여미니 지금의 조복에 曲袷가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 임이 當旁한다고 한것은 상의 12폭 분인 임의 몸의 한 옆에 당한다고 하는 것이다.

‘임이 當旁한다, 고 한것은 상의 12폭 불인임의 몸에 한 옆에 당한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임은 혹 살(殺)하여 아래로 가기도 하고 혹은 살하여 위로 한다 라고 한것은 모든임이 한가지에 관한것은 아니다. 상복의 임은 넓은 부분이 임에 있기 때문이다.

3) 「孟子」의 학설

① “規와 矩는 方圓의 지극함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方은 땅을 의미하고 圓은 항상 動하고 하늘을 의미한다.

또한 平은 기울지 않는 것이고 直은 굽지 않는 것이다. 「論語」에는 ‘사람의 사는 것은 直이다.’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方圓平直의 意義를 살필 수 있다.

② “離婁와 같이 눈이 밝고 公輸子와 같이 기술이 뛰어나도 콤파스나 曲尺을 쓰지 않으면 사각형이나 원을 그릴수 없다.”라고 하여 聖인들이 자기의 밝은 시력을 발휘하여 콤파스나 曲尺이나 수평이나 먹줄을 사용하여 사각형이나 원형, 평면, 직선으로 된 여러물건을 만들었고 “콤파스나 곡척은 方形과 圓形을 그리는 표준이며 성인은 人間倫理의 표준이다.” 이는 임금이나 신하가 모두 堯임금과 舜임금을 본 받으면 된다 라고 하여 先王之道의 政治思想을 엿볼수 있는데 신하는 舜이 堯임금을 섬기던 지극한 태도로 섬겨야 하고 또 堯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던 정성된 태도가 아닌 다른 태

도로 다스리면 그런 임금은 백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언급한 바, 離婁나 公輸子처럼 교묘한 손재주를 가졌다 해도 콤파스나 曲尺이 해내는 것처럼 완전한 원형이나 정방형, 수평이나 수직을 그릴수 없다. 콤파스나 曲尺이 方圓平直을 갖는 표준되는 것처럼 성인은 인간윤리의 표준이 된다.

③ 즉 소매의 圓과 깃의 方과 등솔의 直과 치마 자락의 平이 되는 方圓平直은 規矩準이 없으면 바르게 그리기가 불완전하다. 라고 하여 堯舜之道의 본받음이 없이는 仁政이란 불가능 하다는 뜻이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하늘인데 소매는 움직여서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땅인데 깃은 멈추어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孟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規와 거는 方圓의 지극함이라,”하였고 또 「文中子」의 말을 인용하면서 圓한것은 動하고 方한것은 조용한 데서 하늘과 땅의 마음을 본다고 했으니 “이것이 그 뜻이다. 또한 平은 기울지 않는 것이고 直은 굽지 않는 것이다. 또 「書經」을 인용하여 平康正直이라 하였고 「論語」를 인용하여” 사람이 사는 것은 直이다.”라고 했으니 여기서도 負繩下齊의 意義를 볼수있다. 하였다⁸⁾

「大學」에 治國平天下章에 絜矩之道는 曲尺으로 세상의 모난것을 재듯이 덕을 근본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成人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絜矩之道를 얻기 위해서는 개성을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성을 체득 실현하는 것이다. 「周易」의 모든 이치는 음양의 相交와 協力에서 생성하고 발전의 근원이 된다. 傳에 深衣의 상의는 乾(하늘)을 下裳 坤(땅)을 의미하며 우주의 構成法을 상징한다.

深衣를 입는 사람은 안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天地의 自然法則을 자신에 옮겨 생각하려 하였다. 이러한 뜻을 深衣에 두었다. 하늘은 陽으로 동글고 動하여 소매모양에 두었고 땅은 陰으로 모지고 靜하여 깃의 모양에 두었다.⁹⁾

8) 秦漢哲·「孟子」, 平社凡, 1985, p.384~385

9) 金正子, 儒教經典의 深衣, 服飾 20號

4.) 朴珪壽의 學說

「거가잡복고」에서는 의상 가운데 반드시 中衣가 있었으니 吉服으로 부를 때는 深衣, 布衣라 불렀고 漢·唐 이래에는 白紗中單 또는 白衫이라 불렀으며 通服으로 부를 때는 喪服中衣, 練衣라 불렀고 漢·唐 이래에는 中單이, 周遮衣라 부른다고 하였다.

이어서 여기에서 “中衣는 深衣이라” 기록하고 深衣는 衣裳을 연결시키고 채색으로 純을 한것이라 하였다.

深衣는 衣·裳을 연결시키는 것이며 모두 안에 다 착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衣라 하고 長衣라 하고 喪服中衣라 하고 純衣라 하고 麻衣라 하고 素衣라 하고 布衣라 하니 이는 모두 深衣의 제도인데 다만 베풀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名目이 같지 않은 것이다. 中衣라고 하는 것은 조계 喪服의 안옷(裏衣)의 총칭이다. 長衣란 것은 바로 드러나 보이게 입는 露着것으로 深衣처럼 생겼으며 中衣위에 입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聘禮」를 인용하여 長衣에는 練冠인데 大夫가 상을 만났을 때 입거나 主國君이나 夫人의 세자가 죽으면 대부가 입는다. 「聘禮」의 주를 인용하여 長衣는 素純, 布衣이며 길할때는 中衣가 되는데 그 치수를 1자를 덮게하여 곁에 입으면 深衣가 된다.

深衣는 中衣라 한것은 바로 哀服을 겹쳐입는 옷이다.

喪服衣를 인용하여 帶의 緣은 冠을 따른다 하였고 緣은 深衣의 연과 같게 하였으니 이는 喪服 中衣에서도 深衣를 사용한 것이며 長衣와 길지 않게 하였으며 緣은 布를 사용하여 冠에 비해 첩세하다 하였다.

고로 喪服 中衣로 입을때만 1자를 덮는것이 없는데 장의 및 吉服의 中衣와 같지 않다. 그러나 그 제도는 모두 深衣 제도인 것이다.

麻衣는 大祥의 中衣인데 소상의 緣衣와 구별된다. 「閭傳」에는 대상은 素縞麻이다.

素衣·布衣는 바로 中衣를 재질에 따라 부르는 명칭인데 「玉藻」를 인용하여 ‘帛으로서 布의 안을 넣는것은 예가 아니다’라 하였다. 여러가지 제도에서 모든 의상이 나뉘어지지 않는것은 다 深衣의 제도인데 中衣가 深衣 제도라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玄端의 中衣 역시 深衣제도인데 다만 中衣의 소매에는 마땅히 「玉藻」에 있는데 이어서 1尺을 덮는다는 것이 있어야 하나 이치로 보아 합당치 못해 매우 불편함은 이미 논술했었다. 이제 팔을 덮는 소매로 深衣를 만들고 덮는 것으로 하지 않았으니 예를 아는 君子들이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다.

<표 1> 深衣學說 비교도

	朴珪壽	鄭玄	孔穎達	孟子
명칭	中衣, 素衣, 布衣, 練衣, 純衣, 麻衣	深衣, 中衣, 長衣, 麻衣	長衣, 中衣, 練中衣	深衣
의복재료	삼베, 목면, 布, 麻, 白芻布	15升布 안감 → 帛	15升布(고운베)	
치수(寸尺)	指尺(1寸, 1分, 1尺, 1장) 상의길이 3尺 6寸 6分 상의폭 1寸에만 제한다. 상의협단 6寸이고 할단은 1尺 2寸이다.	소매는 팔꿈치를 지나 1尺을 더함, 소매의 節은 2척 2촌이다.	소매길이 2척 2촌 허리는 1장 4척 8촌 상의 1폭 → 2척 4촌	치수는 曲尺을 써야 한다.

소 매	反肘한다.	回肘한다.	반출한다.	소매는 陽이며 動하여 등글다
깃	方領이다.			깃은 陰이며 靜한 모양이다.
상	상의 폭 6쪽을 매폭쇄(殺) 상은 협단과 활단으로 나눈 면 사변과 직변이 된다. 상의 활단은 모두 아래로 가고 협단은 모두 위로 향한다. 속임구변한다.	상은 6쪽이다. 임상은 12로 나눈다. 상의 앞뒤가 같다. 속임구변한다. 상의 임은 奮勇한다. 상의 폭을 쪼갬한다.	상의 폭은 12쪽이다. 임이 당방한다. 임은 쇠(殺)한다. 상의 넓은 부분을 아래에 둔다.	
봉입법	오른쪽 사변은 오른쪽에 두어 사변끼리 꿰맨다. 아랫단은 평평하게 한다. 꼭걸을 만들어 方領을 만든다.	삼거이다.		
상징성	천지의 數, 음양, 四時, 乾坤象, 길흉사에 함께 입는다. 몸과 집과 나라를 다스린다. 군자도덕, 중용지덕의 근본이다.			規와 矩는 方圓平直의 사상이다. 直은 下濟의 意義이다. 上衣는 乾(하늘)을 下裳은 坤(땅)을 의미하며 우주의 구성법을 상징한다.

II. 朴珪壽의 深衣 定義

深遠한 法象이 있고 심수한 文章이 있고 심수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深衣라 하고 심수한 옷이라 한다.

1) 天地의 수에 합치되고 陰陽의 자리를 나누었고 四時의 운행을 차게하고 乾坤의 象을 심고있기 때문에 심수한 법상이 있는 것이다. 損益의 마땅함을 얻고 上下의 뜻을 정하여 위를 섬기고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릴 수 있기에 심수한 문장이 있다.

2) 衣裳이란 몸에 알맞아야 하고 법상의 아름다움과 문채의 성대함이 보여야 한다.

3) 황폐한 백성의 추위와 더위 괴로움을 늦추어

서는 안되고 귀천남녀 구별없이 의상을 내린다.

4) 하늘이 아래백성을 내리어 그 정취를 받았으니 四肢白體는 모두 지극함이 있다. 어깨에서 복숭아 뼈까지 5척 5촌이다. 衣 하나에 裳 둘인것은 하늘의 수는 하나이고 땅의 수는 둘이어서인가? 저고리의 길이는 1척 8촌 3푼, 상의 길길이는 3척, 6촌, 6푼이다.

衣幅과 상임이 모두 18인 것은 18이 변하여 卦를 이루는 것이다. 포를 써서 續衽하는 것은 閏月로서 세시를 정하는 것이고 角을 베어 안팎에 나누어 붙이는 것은 12월이 4시에 통솔되는 것이다. 베를 3척 6촌 6푼으로 베는 것은 1년 365일을 나타내는 것인가? 領의 너비 3번 하여 袷가 되고 袷의

들레 3번하여 衣袂의 앞뒤가 된다.

5) 自然의 법상과 자연의 문채가 없으면 奇巧를 부릴수 없다.

군자의 器服은 귀로 들고 눈으로 보는 바에서 모두 지극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6) 몸에 가까운 물건치고 옷보다 더 능상할것이 없다.

7) 君子の道는 지극하다.

천박함이 드러나지 않고 仁을 행하여 四海를 덮기에 충분하고 一身을 두루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만물을 다스리되 가혹하고 급하게 다스리지 않는다.

8) 군자는 言語를 지극히 삼가야 한다.

말이 많으면 德이 없게 되고 말이 적으면 道에 가깝게 된다. 밖으로 화평하고 관대한 모습이어야 하고 마음 속으로는 光明하고 겸손 우아한 뜻과 方嚴, 正直한 기풍이 있어야 한다.

9) 군자는 威儀를 엄숙하게 하지 않을수 없다. 天下·國家의 중함이 자기 한몸에 달려있다. 총명 예지가 있어 사방 만물을 비추고 사랑으로 보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頭容은 반드시 곧게 하는 것이다. 箕踞, 跛倚, 狂奔, 疾走함이 없으며 그 뜻이 怠慢하지 않고 그 몸을 망치지 않을 자이다.

10) 사람에게 있는 心靈과 지혜는 오직 그 운용함이 小人인 사람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小인은 그 지혜를 사사로이 자기의 이해에만 두기 때문이다.

11) 군자가 지혜를 쏟은 곤적으로 천하와 好惡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일도 구차스러움이 없고 막힘이 없고 등근 고리와 같이 폐함이 없고 어긋나지 않는다. 深衣의 소매가 등근것은 군자의 지혜 씬이 등근것을 알 수 있다.

12) 形體도 없고 자취도 없고 소리도 색도 없는 것이 천하에서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군자는 深衣를 입고서 절방이 심장에 당하는 것을 보고 군자의 마음다스림에 道가 있고 행실이

方正하여야 함을 알게 된다.

13) 세상을 다스리는 보배로는 정직함보다 좋은 것이 없는데 억지로 바로 잡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군자는 천하의 습성을 정직하게 하고자하기 때문에 深衣를 입고 衣縫이 전후가 곧고 좌우도 곧은 것이다.

14) 군자는 한쪽으로 치우친 행실이나 괴롭고 궁한 節操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深衣를 입고서 下齊가 평평한 것을 보고는 군자의 中庸은 어디가나 平常하지 않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5) 속임 구변을 보고서 官을 설치하고 등금과 위엄이 있고 輔相과 上德을 펴 백성들의 고통을 통하게 됨을 알수 있게 한다.

16) 衣를 덮어 腰를 심고 腰를 덮어 齊를 심는것으로 보고 임금이 풍족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백성의 풍족함이 바로 임금의 풍족함인것을 안다.

17) 領을 腰에서 취하고 속임을 齊에서 취함을 보고서 백성에게서 취함은 야박한 일이며 임금이 백성을 길러야함은 하늘이 명한바요, 백성을 기르는 도리인 것을 안다.

18) 領, 衿이 엄밀함을 보고 자신을 다스리는데 엄하게 하고 큰 흠이 있어도 스스로 드러내서는 안됨을 안다.

19) 下齊의 옷이 넓은 것을 보고 아랫사람을 거느리는데 관대함을 보이고 사람이 제자리에 있도록 해야 함을 안다.

20) 純袂와 緣邊을 보고 밖으로 사해에 모두 文數를 펴 미치게 해야 함을 한다.

21) 方圓과 曲直이란 천하의 지극한 象이요 大小의 長短은 천하의 지극한 숫자이다. 밖에서 접촉한 것은 반드시 속에서 느끼고 안에서 느낀것은 반드시 행실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深衣는 임금과 신하가 함께 입어도 어지럽지 않으며 남녀가 함께 입어도 浮亂하지 않으며 吉凶事에 함께 입어도 문란하지 않다.

한 深衣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게 하고 집과 나라, 천하의 일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¹⁰⁾

10) 朴堯壽 전게서 深衣編

Ⅲ. 朴珪壽深衣의 構成法

朴珪壽는 深衣의 衣裳의 폭수를 정현이나 공영달의 12폭에 대하여 18폭을 주장한다. 衣가 6폭이고 裳이 12폭을 합한다고 말한다. 縫을 전후좌우 곧게해야 하며 下齊(아랫단)는 평평하고 넓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深衣 의복재료, 치수, 봉제법에 대한 실용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試論은 다음과 같다.

1. 深衣材料

帛으로 布의 안을 넣는것은 예가 아니다.

深衣가 袴衣란 말은 질기어 떨어지지 않는것을 말함이요, 易有란 것은 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이다. 15升은 지금은 아주 가는 베여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15升을 인정한 법을 삼을 필요가 없다.

「詩經」에 “麻衣가 눈빛처럼 희다”라고 하였으니 그 깨끗함을 상상할 수 있는데 지금의 마포는 누런것이 많고 흰것이 적으니 시인이 지나치게 과장하여 백설같다라고 한 그 법을 正色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蠶繭과 麻와 葛로 나누고 후세에는 白苧와 木綿이 두가지 베가 되었지만 지금은 모시가 삼베로 쉽게 구할 수 있고 무명은 형방에서 나왔으나 이미 백성들이 성행한지 오래되어 얻지 않으니 가죽이나 帛아래에 할수없고 질박하고 검소하고 깨끗하고 질기니 군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深衣는 본래 마포로 만들어야 합당하나 여름에는 白苧布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무명베로 만들면 좋은 것이다. 당시 군자들이 布로 深衣를 지은것은 당시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深衣置數

深衣를 만들려면 먼저 몸에 맞는 寸尺을 만들어

야 한다. 입을 사람의 中指를 굽혀 손바닥 가운데 닿게 하여 그 중절의 양쪽의 가로무늬「橫紋」가 손가락 양쪽에 나타나는 것을 보아 두 무늬의 머리가 얼마인가를 비교해 1촌을 삼고 1촌을 10등분하여 1分(分)을 삼으며 1촌을 10번하여 1척을 삼는데 의, 상의 척촌은 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溫公의 深衣제도에 말하기를 “무릇 척촌은 모두 周尺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深衣의 척도는 스스로 일정하게 바꿀수 없으니 뚱뚱하고 마른 사람의 장단이 다 같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체격을 재려면 아름답지 못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일신에 자기의 척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指寸으로 자기의 深衣를 만들려면 정확하게 되어 바꿀수 없는 수척에 맞아 차이가 없게된다. 대개 키 큰 사람은 손가락 마디 역시 길고 키가작은 사람은 손가락 마디가 길지 못하고 말랐기 때문에 옷이 넓은 필요가 없으며 뚱뚱한 사람은 손가락 마디가 길고 살찐기 때문에 옷이 넓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천하의 지극한 이치이며 천하의 옷을 中指의 寸을 쓰지 않으면 할수가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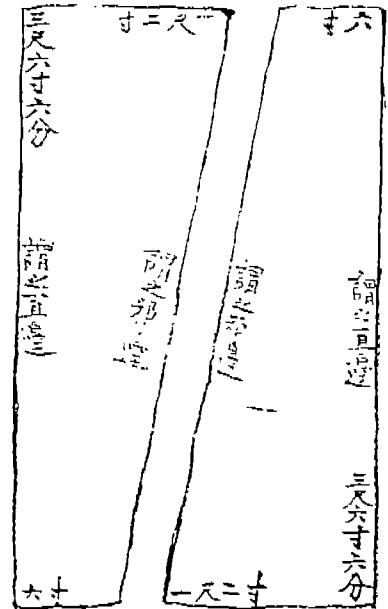
深衣의 제도는 漢唐時代까지는 典刑이 있었는데 五代에 문란해져 司馬公이 「玉藻深衣編」에 다시 제도를 정하였다. 그 후 朱夫子가 溫公의 제도를 그대로하여 家禮에 실었으나 定論이 되지 못했다.

「書儀」家禮 두식은 모두 定本이 아니며 체씨의 「傳」역시 曲絃한가지만 옳고 온당치 못한점이 많다. 이에 「玉藻」 및 「深衣」의 본문과 정씨, 공씨의 여러 방식을 취하고 近世諸家와 우리나라 先儒들의 방식을 반복하여 연구해 보았다. 深衣제도역시 먼저 몸에 맞고 深遠한 實用性을 구하고 후에 文飾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는 '의의 길이를 1척 8촌 3분으로 하고 상의 길이는 3척 6촌 6분 하였으나 총길이는 어깨부터 발 북송아 뼈까지 5척 5촌으로 한다. 「深衣玉藻」의 정씨의 주석을 스승으로 삼아 연구해 우리의 深衣제도를 만들었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크게 어긋났거나 빠진 것이 없을 듯하다.

베를 넓이 1척 8촌 길이 3척 6촌 6푼으로 잘라 모두 12폭으로 만드는데 그중 6폭은 의와 소매 6폭은 나누어 상을 만드는데 남은것을 치수에 따라 여유를 준다. 옛날 베의 넓이는 2척 2촌인데 폭을 붙일 때 이어 꿰매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의 深衣는 상임은 4촌을 더하니 대개 한폭은 잘라서 두 쪽을 만들고 봉변이 넷을 이어 각기 1촌씩 감쇄하기 때문이다.

衣幅은 봉쇄 2촌을 제하는데 봉변이 단지 좌우만 있기 때문이다. 상의 폭을 4촌을 제하고 안쪽을 꿰매니 너비는 1척 8촌이 된다. 그런데 衣폭은 봉변이 단지 좌우 양면만 있으니 각기 1촌씩만 제하면 죽한테 이제 4촌을 제하니 베의 낭비가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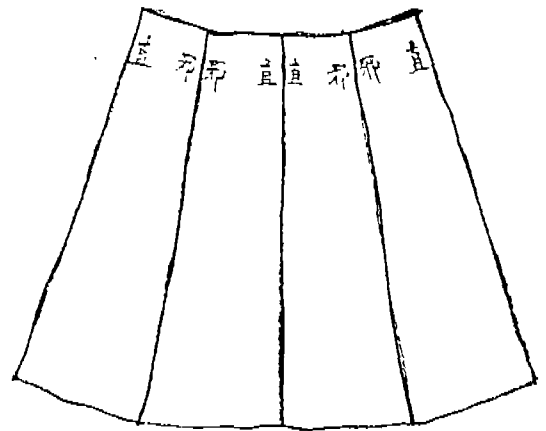


〈그림 6〉 深衣의 裳을 교할하는 법

3. 深衣裁縫法

「深衣」에 “12폭으로 만드는 것은 12월에 응하는 것이다.”

- ① 衣 6폭, 裳 6폭으로 합계 12폭이다.
- ② “裳은 6폭이며 매폭을 교해하여 반드시 상은 쇠한다.”라고 하였다.
- ③ 衣가 6폭임을 알수있고 衣 폭은 분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소매길이는 反肘한다. 제가들의 深衣는 4폭으로 소매를 한다.”라고 하였는데 6폭으로 해야 팔꿈치에 미칠수가 있는것이다.
- ⑤ 裳의 狹端은 6寸이고 闊端은 1尺2寸이 되며 베어진 곳은 邪邊이고 쪼개지지 않은 곳은 直邊이라 한다.



〈심의 7〉 深衣의 裳을 꿰매는 법

⑥ 헐단은 위로 활단은 아래로 가게하여 왼쪽에 합해서 꿰매고 오른쪽 사변은 오른쪽에 두어 그 사변을 합해 꿰맨다.

⑦ 상의 (자락) 은 12褶으로 12월에 응한다.

⑧ 衾을 커로 衣에 붙이는데 속임한다. 중앙의 봉선이 衣의 중앙 봉선에 당하게 하면 허리안의 횡봉이 2척 4촌이어서 조금 여유가 있다. 또한 좌변 우변의 2조각임을 붙일곳이 없어 옆에서 구변할 수 없다.

⑨ 衿을 붙여 鈎邊하게 하는데 布의 너비와 길

이 모두 1척 4촌 3푼되는 것을 그 續 하는 布는 원래의 12幅 가운데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라고 하고 속임하는 功用이 있기 때문에 “續衽”이라 하는데 ‘續’이란 부족함을 이어 보충한다는 말이다.

續衽을 하지 않으면 2편의 입을 붙일곳이 없어 형세가 막히지만 속임을 하면 그 형세가 넓어져 여유가 있기에 ‘裕衽’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鈎邊이라는 것은 身邊을 구압하는 것인데 정현의 설인 ‘구변은 지금의 曲袂이다’라고 한 설에 반박하고 朝祭服과 深衣의 이 功用하는 것만 비슷하다고 말하고 이른바 ‘지금의 曲袂와 같다’라고 한 것은 이런것을 말할 것일뿐 12임에 별도로 곡거를 설치하여 朝祭服과 같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몸을 둘러싸는 裳의 邊이기 때문에 鈎邊이라 한 것이다. 역시 外衽을 교차시켜 內衽을 덮어 여미는 것이 까마귀가 부리를 아문것처럼 둥글게 아무린다는 것이다. 즉 이제도는 當旁하고 鈎邊하는 제도이다.

⑩ 曲袂를 만들어 方領을 만든다.

⑪ 좌우 소매는 만드는데 구(口)는 각기 상하 1척 2촌으로 둘레가 2척 4촌이 되게 해야 하니 이것이 袂이다. 「玉藻」에 “袂는 1척 2촌이다”라고 하였다.

⑫ 좌우 格의 高를 만드는데 어깨에서 부터 아래가 1척 2촌 背縫에서 부터 좌우 각기 1척되는 곳에 裳腰의 옆의 衣와 접하는 곳을 6촌 3푼되게 한다.

‘심외에 帶를 아래로 허벅다리를 누르지 않게 뼈가 없는 곳에 당하게 된다’라고 하였고 대부의 大帶는 4촌이요, 士의 緇帶는 2촌인데 두번 두르면 4촌이다.

⑬ 圓袂를 만드는데 袂口에서 부터 1척 2촌되는 아래 6촌 3푼되는 곳에 格 아래 6촌 3푼 되는 곳은 모두 角을 둥글게 죽이면 이것이 圓袂가 되어 規에 맞는다. 規에 맞게 하는것은 가면서 손을 들어 損하고 容儀를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⑭ 領의 가장자리 裳의 가장자리에 소매 양끝

(袂口)에 緣을 가한다.

IV. 結 論

1. 우리나라의 深衣는 高句麗 文咨王 491년에 전래되었고 高麗時代에는 喪服으로 착용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유가의 法服으로 사례의 통복 및 가례복이 되었다.

2. 鄭玄의 學說은 심외의 상징성을 강조하였고 구성법이 불분명하다.

3. 孔穎達의 學說은 구성법이 발달되었으나 難解하다.

4. 孟子의 學說은 方圓平直의 의의를 심외에 두고 直의 사상이 人間論理표준으로 구성원리를 설명하였다.

5. 原田淑人の 심외는 우아함보다는 Fashionable 하다.

6. 中國深衣는 지나치게 광활하고 갖에 無理가 있다.

7. 朴珪壽는 심외의 용도를 吉服으로 또는 喪服으로 입을수 있다고 論證하고 있다.

8. 朴珪壽의 심외 재료를 15升 베도 사치적이며 면직물을 주장한다.

9. 朴珪壽는 심외의 寸尺을 指尺 사용을 주장하였다.

10. 朴珪壽는 심외의 裳의 폭을 衣폭 左右 1촌만 제한다. 중국 심외의 4촌을 제한하는 것은 직물의 낭비가 심하다고 주장한다.

11. 朴珪壽의 심외 소매는 反肘하며 폭은 6폭이다.

12. 朴珪壽의 심외는 邢邊과 直邊의 봉임법이 실용적이다.

이상 朝鮮後期 朴珪壽가 제창한 深衣 構成論은 中國의 鄭玄, 孔穎達, 孟子, 日本의 原田淑人の 심외의 단점을 보완한 우리 민족에게 알맞게 제정하고 있다.

더욱이 朴珪壽는 深衣의 象徵의 意味를 忠孝思想 道德君子 中庸知德을 고취하여 우리민족의 의식구조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또한 우리민족에게 알맞게 衣服材料와 그 치수와 尺寸과 구성의 묘미와 象徵의 意味를 부여한 國속화한 우리나라의 深衣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朴珪壽 深衣를 실제로 제작하여 諸學說에 나타난 深衣와 比較分析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金宗瑞, 고려사 절요 1865
- 金東旭, 한국服飾史 연구, 서울: 아세아 문화사, 1973
- 權桂淳, 우리 옷의 변천과 제복 1979
- 朴珪壽, 「居家雜服攷」 1865
- 徐有錫, 임원십육지 제2권, 서울: 서울대학교 고전 간행회, 1967
- 石宙善, 한국服飾史, 서울: 보진제, 1971
- 俞 榮: 家禮源流, 木版, 肅宗 37(1711)
- 柳聲遠: 國譯 註解 盤溪隨錄, 大田: 忠南大學校, 1962
- 柳喜鄉: 高麗服飾, 中國服飾의 影響
- 李康七: 韓國名人肖像大監, 探求堂, 1970
- 李圭景: 五州衍文長箋散稿, 서울: 東國文化社, 1959
- 李肯翊: 연려실기술법집,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66
- 李德懋: 靑莊館全書, 上卷, 서울: 서울大學校 古典刊行會, 1966
-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백양당, 1947
- 李裕元: 林下筆記, 서울: 大東文化研究所版, 1961
- 李 締: 四禮便覽, 木版, 1844
- 李恒福: 四禮訓蒙, 顯宗, 1674
- 朝鮮總督府 中樞院: 李朝各種文獻 風俗關係資料撮要, 1939
- 趙好益: 家禮考證, 1646
- 趙孝順, 韓國服飾 風俗史 研究, 1988
- 朱 熹: 朱子家禮
- 震檀學會 韓國史 乙酉文化社
-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臺灣 商務印書館, 1978
- 崔南善: 朝鮮常識(風俗篇), 서울: 동명사, 1947
- 韓元震: 南塘草稿.
譯註 高麗史, 제2권, 釜山: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1965
大百科辭典: 서울: 學園社
-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 王 析: 三才圖會(四), 臺北, 1970
-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賢人會, 1969
- 原田淑人: 漢六朝의 服飾, 東京: 東洋文庫, 1967

ABSTRACT

The Construction Theory of "Sim-Eui" During Chosun Dynasty

1. It was recorded at "Dong Gook Tong Gam" of King, "Jang Soo" that "Sim-Eui" in Korea was first introduced from China at the reign of King, "Moon Ja"(491, A.D.), Go Goo Ryo.
2. "Sim-Eui" was worn as a mourning dress during the period of "Go Ryo" and as a concanonical robe of Confucian, a ceremonial dress at home and for the rules of etiquettes during Cho Sun Dunasty.
3. Several theories about the construction and the using services of "Sim-Eui" are observed and summerized.
4. Mr. Kyu-soo Park gives a definition to "Sim-Eui" as a Fortune of Heaven & Earth, the

Constellation of the Cosmic Dual Forces, the Revolution of the Four Seasons, a dignified mien & the Way of a Man of Virtue and the Virtue of the Golden Mean.

5. I observed the concrete measurements of the each parts of "Sim-Eui" by the construction method of Kyu-Soo Park.

6. The Symbolic Meaning following the Idea of Mr. Chung, Hyun describes well the line of thinking in our nation, and Idea of Loyalty &

Filial Piety, a Man of Virtue and the Virtue of the Golden Mean.

7. As described above, I dare insist of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 Theory of "Sim-Eui" by Kyu-Soo Park during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is full of our national manners and customs with symbolizing meaning, construction's exquisiteness, clothes' materials and it's size most suitable to our people, to the exclusion of the defects in "Sim-Eui" of China and Japan.